

# 올 연말에는 폼나게... 가족과 함께 문화송년회 어때요

### 뮤지컬 '맘마미아'·김장훈·싸이·브라운 아이드 소울 등 놓치면 후회... 미리 예매 댄 할인 혜택

▲뮤지컬 세계로 뚫음  
그룹 '아바'의 히트곡을 뮤지컬로 옮긴 '맘마미아'(12월 3일~5일 광주문화회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작품이다. 지난 2004년 국내 초연후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대표 히트상품'이 된 '맘마미아'에서는 '댄싱퀸' 등 아바의 히트곡 23곡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한국 뮤지컬 1세대 대표 배우 최정원과 남경주·이경미 등이 출연하며 세련된 무대와 뛰어난 음향, 화려한 조명 등이 인상적이다.

본 공연도 좋지만 앙코르 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상을 입고 펼쳐지는 뒷풀이 공연이 일품이니, 신나게 즐길 것. 문의 062-220-0541.

한국 대표 난버벌 뮤지컬 '난타'(12월24~25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는 13년 동안 한국을 비롯,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작품이다. 문의

광주 지역 극단 연인이 선보이는 '정인'(12월 3일~2011년 1월9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은 드라마 '파리의 여인'으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의 원작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두 남자의 순애보를 그리고 있다. 문의 010-2488-0377.

▲콘서트는 어떤가요.  
연말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콘서트만한 게 없다.

한해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DJ DOC의 뽕댄스파티'는 한해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공연이다. DJ DOC의 공연은 가만히 앉아서 관람할 수 없다.

이번 무대에서는 '머피의 법칙' 등 히트곡과 신보 수록곡인 '나 이런 사람 이야' 등을 들려준다. 문의 1588-0766.

다양한 모임이 많은 12월은 공연계 성수기로 꼽히는 시즌이다.

올해 역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문화 송년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12월 공연을 미리 예매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하니 예매를 서두르자.

김장훈 싸이의 '안타치'(12월 18일 광주영주체육관) 공연은 이미 지난해 '단일공연최대매출', '총100억매출' 등의 기록을 세운 검증된 무대다.

콘서트하면 일가견이 있는 김장훈·싸이가 결합, 자신의 히트곡 뿐 아니라 애창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특히 기발한 무대장치 등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1588-0766.

잔잔한 감성을 원한다면 4인조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12월 18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의 공연을 놓치면 아깝다.

한국 대표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나일과 정엽, 영준, 정엽으로 구성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3집 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다. 문의 1544-0412.

▲연극도 놓치지 마세요.  
극단 푸른 연극마을은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후에'(12월 18~25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은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온 인화가 죽음을 앞두고 겪는 이야기를 눈물겹게 그린 작품이다. 문의 062-511-2446.

연극 '라이어2탄-20년후'(11월30일~12월 6일 5·18기념문화센터)는 시종일관 폭소가 이어지는 유쾌한 작품이다. '국민연극'이라는 타



'DJ DOC의 뽕댄스파티'

이들이 아끼지 않은 작품으로 연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문의 1688-3820

서울에서 공연중인 연극 '키스할까요'(11월 27일~12월26일까지 광주우체국보험 기분좋은 극장)도 관객들을 만난다. 가까이 있는 사랑을 못하고 먼곳에서 사랑을 찾던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민중미술가 전정호 '조선의 아침'을 담다

### 경술국치 100년 기획초대전

### 롯데갤러리 18일~내달 1일

1988년 조선대 본관 옛 학생회관 원형건물 벽면을 장식했던 대형 벽화는 민중화를 갈망했던 많은 이들의 피를 끓게 했다. 벽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예술을 꿈꾸던 스물 일곱 젊은이를 잡아 가두던 참담한 시절이었다.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와 조선대 학생회관 벽화 등 유명 벽화를 그려온 민중미술가 전정호씨가 오는 18일~12월1일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경술국치 100년 기획 초대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조선의 아침'을 주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한반도에서 자행된 독재와 학살을 고발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대부분 출품작은 150호가 넘는 대작이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근로정신대 문제, 용산참사 등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의 아침'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무자비하게 휘둘러졌던 일본도의 섬뜩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회벽이 떨어져 나간 절집 벽의 불화처럼, 화면 곳곳을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잊혀져 가는 역사의 아픔'을 형상화 했다.

또 친일파의 후손들이 과거사를 감추기 위해 삼을 들어 땅에 파묻는 과정을 풍자적으로 담은 작품 등도 눈에 띈다.

그는 "후배 대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 하지만 인간의 폭력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조선의 아침'

있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과 광주에서 3차례 개인전을 열고, '저항과 평화의 바다' 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난 1980년 조선대 미술패 '땅끝'을 만들어 활동하던 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창작과 관련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송순섭 단장 퇴임

"젊고 유능한 인재가 와서 국극단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조상현·성창순·홍성덕씨에 이어 지난 4년간 광주시립극단을 이끌었던 송순섭(74·사진) 단장이 18일 퇴임한다.

송단장은 재임 기간 중 고경명 장군, 안중근 열사, 유관순 등 우리 역사 속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제작한 점을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

"사람들이 안중근 열사 등 위인들의 이름은 알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고구 장르인 창작극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복원하고 알린 건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송단장은 특히 "광주 뿐 아니라 서울·전남·창원·부산 등 전국에서 작품을 공연, 광주의 국악을 널리 알린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송단장은 국극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원과 공연 점을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

"현재 단원이 52명인데, 대작을 무대에 올리려면 객원들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어요. 지난해 조례상으로 인원을 70명까지 늘렸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별 의미가 없게 패버렸죠. 1년 공연 예산이 1억 8000만원에 불

과한 것도 문제죠." 지금도 전남대와 서울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단장은 "송순섭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은 좋은 제자를 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 후진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시립극단 새 단장 공모

광주시가 신임 광주시립극단 단장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오는 18일로 현 송순섭 단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년 임기의 신임 단장을 공모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1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신임 단장은 시가 구성하는 전행위

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시장이

적임자를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 위

촉할 예정이다.

국극단은 매년 정기공연 3회, 수시공연 5회, 외지공연 8회 등 10회 이상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시립극단의 공연계획 수립과 공연제작 등 단체업무 총괄 지휘 감독하게 된다.

한편 시립국악관현악단(11월30일)과 무용단장(12월30일) 역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재임 여부 등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062-510-92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모집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애)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내국인 가정 자녀들이 함께 하는 '빛고을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1학년생이며 모집 마감은 오는 19일이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단원 선발 오디션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문의 062-363-29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비지원

매월 수당 지급  
실업자(계좌제), 재직자

### DIY | 가구리폼 | 실내 인테리어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신종 유망직업'



▲가구 리폼

▲소품 리폼

가구, 장롱, 신발장, 방문, 현관문, 식탁, 싱크대, 물딩 등  
집안 및 상업공간, 직접시공 및 리폼 가능합니다.

## 시공상담환영



▲가구 리폼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 리폼

▲싱크대 리폼

NAVER 검색창에 '광주인테리어필름'을 검색하세요. (www.gfilm.kr)

광주·전남 최초 설립  
**광주인테리어필름학원**  
위치 : 안보회관 사거리 파크랜드건물 3층

☎ 080-529-1112  
062-529-1112, 010-3977-4178

#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시공  
판매

###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틀단지  
전남주택 '석면공포'

천공, 탈락 - 고정 100% 중 90도도 견장력



**공장 직영**  
최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해 저렴합니다.

**공정 직거래**  
현직,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주택 개·보수**  
현직,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인테리어**  
커피숍, 레스토랑, 노래방, PC방, 식당 고급 인테리어

**APT, 주택 리모델링**  
베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장판

**협력업체 및 영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색상별 칼라강판



단 하루면 시공완료

주택, 지붕, 창고

공장, 펜스, 닥트

**대농산업**  
DAE NONG

본사 및 공장주소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010-8608-6548